

식품수출정보

調 査 部

필리핀政府, 129個 品目 輸入 自由化

—世銀권유로, 우리나라產 사과
進出확대 有望—

필리핀 중앙은행은 告示1174號로 129개 품목에 對해 수입을 自由化한다고 지난 5月1日 公告했다.

이에따라 鐵網製品 일부, 合成樹脂제품 일부, 耐火物質일부, 정어리, 고등어 통조림, 織物類 일부등 6개항목 108개 品目에 對해서는 더이상 相關된 정부기관의 사전 수입승인이 필요없게 되었다.

또한 오렌지·사과·포도·배등 19개種의 과일및 乾果類와 일부권련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수입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 評價

동조치는 세계은행이 그동안 3억불에 달하는 經濟開發借款을 필리핀 정부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입자유화 조치를 앞당기도록 압력을 가한데 따른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과의 수입이 자유화됨으로써 우리나라產 사과의 진출확대가 유망해 졌다. 그러나 美 農務部가 사과수입이 자유화될것에 대비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 87年중 경쟁력을 조사한바 있어 美國產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美·日, 쇠고기 및 감귤類 協商결렬

—美 GATT에 提訴할듯,
報復조치先行될지도—

美·日間의 쇠고기 및 감귤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美國은 동건을 GATT에 제소할 것이라고 한다.

日本은 지난달까지 동 분쟁이 GATT에서 검토되는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는데, 이번 협상에 美國대표로 참석했던 Clayton Yeutter 美 통상대표는 더이상 동건에 對한 협상에 응하지 않을것임을 천명하면서 만약 日本이 양보하지 않을경우 1年前 컴퓨터칩 禁輸조치와 같은 보복조치가 있을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美國의 日本에 對한 쇠고기 및 감귤류 수출은 4年前 양국협상에 의한 쿼터에 의해 결정되어 쇠고기는 年間 21만4천%, 감귤류는 12만6천%로 묶여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各各 6억佛, 1억佛이었는데 美國측 주장에 의하면 日本의 規制가 없을경우 동품 수출은 배로 신장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 評價

이와 相關된 워싱턴 주재 日本大使館 경제 참사관인 도시지 노가미氏는 日本정부는 동건이 GATT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아직도 양국간 協商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日本정부로서는 자민당의 지지 기반인 農民들의 반발과 美國의 보복조치를 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할 입장에 놓여있다.

한편 美議會에서는 301조 발동을 통한 報復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GATT의 동건에 對해 결정이 내려지기 前에 美國정부의 報復조치가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UAE, 食品 輸入減少예상

—'88年6月15日부터 食品有效期間
단축 시행—

UAE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되어 있는 자유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關稅 및 非關稅장벽이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수입규제 목적은 아니나 국민보건 위생에 관련된 일부 醫藥品과 食品에 對해서는 품질, 내용물, 포장 등을 매우 엄격하게 검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UAE 정부는 통조림 등 調製食品의 사용유효기간을 단축하여 88년 6월15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는데 이 조치는 再輸出 등을 위한 비축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식품류의 수입물량이 감소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재수출 수요 등 수요가 발생할 경우 가격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지 무역업자들이 유효기간을 감안하여 輸入先을 인근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主輸出國인 美國과 中共으로 부터의 수입물량이 감소하는 등 무역패턴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中共이 동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20~22%로 매우 높은 편인데 中共은 선복사정이 좋지 않아 선적지연이 빈번하기 때문에 다른 極東국가로 수입선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업체는 對UAE 수출시 물품인도기일을 정확히 준수하고 가능한 인도기일을 단축하려는 노력만 한다면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을 전망이다. 참고로 현재 유효기간의 경과로 폐기되는 食品은 약 7%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조치도 폐기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韓國 초코렐 · 糖菓類

관세인하 촉구

— 일부 美議員들, 서울올림픽 계기로 韓國市場 진출 확대 노력 —

美上·下議員 10여명이 韓國정부에 對해 초코렐 및 糖菓類의 수입관세율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美國 초코렐 및 제과업계의 로비에 의해 이들

의원들은 우리나라 정부에 공식서한을 발송, 현행 30%나 20%의 초코렐과 당과류 수입관세율을 서울올림픽개막까지 외국수준인 7%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美國產 과자류의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1%에 불과하며 우리업체가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와 같은 고관세율은 부당한 보호조치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과자제조업계의 경쟁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이같은 관세 보호 조치는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아시아국가중 일본·싱가포르·홍콩이 각각 초코렐 수입관세율을 10%, 5% 및 무세 적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금번 관세인하 촉구에는 Patrick Leahy (民, 비몬트州) 등 上院의 9명, Bill Frenzel (共, 미네소타州) 등 下院 2명이 적극 가담하고 있다.

□ 評價

동 관세인하 요구는 우리나라 초콜려 市場이 86년 550억원 규모에서 87년 690억원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초콜려과 당과류 시장전망이 더욱 밝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시장개방압력으로 풀이 된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의 초콜려 및 당과류 수입시장에서 40~50%의 시장셰어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관세 인하시 시장 잠식활동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유리한 시장확보를 위해 수입관세 인하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人蔘類, 對노르웨이 輸出

확대 有望

— 醫藥品에서 일반 商品으로 分類, 輸入自由化 —

노르웨이정부는 지난 9월1일부터 人蔘類를 의약품에서 일반상품으로 분류, 건강식품점, 슈퍼 등 일반상점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수입도 자유화했다.

이 조치는 노르웨이 保健部가 지난 86년말

인삼류의 상품분류방식을 변경하도록 건의한 데 따른 것으로 노르웨이는 그간 인삼류를 의약품으로 분류, Norsk Medical Depo라는 기관에서 수입을 독점했을뿐 아니라 약국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등 유통을 엄격히 규제해 왔다.

□評價

상기조치의 발표이후 노르웨이 최대 日刊紙인 Aftenposten紙는 최근 스웨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삼실험 결과를 게재해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이 일간지는 인삼이 人間の 性的機能을 강화시킬 뿐만아니라 집중력·지능 및 창조력을 증진시키며, 장수·수면 등에도 효용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식품업계는 스웨덴에서는 지난해 S.Kr. 6천만(약946만佛)어치의 인삼제품이 판매되었으며, 지난 5년간 판매액은 10배가 증가했음을 지적. 輸入獨占 및 판매제한조치가 철회된 노르웨이에서도 향후 인삼제품의 판매가 확대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對노르웨이 인삼류 수출실적이 전무한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수입상들이 對韓 인삼류 수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점을 감안, 한국인삼의 대중인식도를 높이며, 엑기스, 분말, 캡슐 등 순수인삼제와 인삼함량도가 낮은 인삼차, 인삼주, 인삼드링크를 분리 판매해 인삼의 효능에 관한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수출확대를 도모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르웨이시장을 잘 파악하고 販賣綱을 확보하고 있는 獨占에이젠트를 통해 현지시장에 맞는 마케팅전략을 펴나가는 장기적 시장확장 방안도 바람직하다 하겠다.

印度, 커피 輸出關稅 전면 폐지

— 커피價 下落 관련 競爭力 유지위해 —

印度정부는 국내 커피 재배업자들의 재배의욕 고취 및 國際市場에서의 커피 價格 하락과 相關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印度産 커피의 수출시 부과해 왔던 커피수출관세를

8월26일자로 전면 폐지했다.

印度는 2년전 까지만해도 커피의 수출관세가 톤당 I.Re.1천 이었는데 이 수출관세가 톤당 I.Re.1,700으로 인상되었다가 지난 8월 중순 관세가 I.Re.1천으로 대폭 인하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印度로 부터 85年 2만5천kg, 86년 100만kg, 87년 130만8천kg의 커피를 수입한바 있으며, 수출관세 폐지로 향후 印度로 부터 커피 輸入이 보다 유리해질 전망이다.

日, 天然果汁 凍조림 製造法 新規開發

— 압력식 殺菌처리로 맛·營養 손실 없어 —

天然果汁을 압력으로 살균해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日本 교토大學 食량과학연구소에 의해 개발되었다.

현재의 加熱살균법은 신선한 맛과 영양분이 손실되고, 냄새가 나는 결점이 있었으나 새로 개발된 壓力살균법은 향기와 품질이 손상되지 않고, 소비에너지도 적기 때문에 食品業界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팀은 耐力容器에 물을 채우고 여기에 감귤류의 천연과즙을 넣은 플라스틱製통을 담은 다음 압력을 가한 결과 2,500기압에서 대장균이 죽고, 2천~4천 기압에서 他박테리아와 효모·곰팡이 등이 죽는 살균효과를 얻었는데, 이 방법은 세라믹加工用 油壓실린더를 사용한 高壓加壓장치 등을 이용해서 온도 제어등 식품처리에 적합한 개량만 하면 된다.

압력살균법은 果汁성분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살균효과와 香味유지에 성공했으나 단 한 가지 주스에 침전물을 만드는 효소의 활성을 보호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홍콩, 清涼飲料 輸入 크게 증가

— 87年 前年比 59% 증가한
HK \$ 1억 1,100만 기록 —

□需要 및 生産동향

홍콩의 연간 청량음료 수요규모는 HK \$20억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물량으로는 약 3억 l 규모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콩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청량음료는 90% 이상이 홍콩産 제품이며, 수입품시장은 10%미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홍콩의 청량음료 수요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탄산음료이나 現地人들의 茶를 선호하는 습관 등으로 인해 레몬茶·국화茶 음료 수요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렌지·망고·코코넛 등 과일음료 및 사탕수수 등을 혼합한 종류의 음료 등도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현지의 청량음료 생산업체는 약 10여개 업체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중 약 5개 大企業들에 의해 시장이 지배되고 있다. 코카콜라를 비롯한 기타 청량음료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Swire Bottles Ltd의 경우 현지 청량음료시장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탄산음료시장의 경우는 약 55%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각 업체들간의 新製品 개발경쟁으로 홍콩시장은 수입품들을 비롯해서 홍콩産 제품들이 종류·포장·容量 등에 따라 30~40여가지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輸出入동향

87년중 홍콩의 청량음료 수입은 HK \$1억1,100만으로 전년대비 59%가 증가했으며, 88년 1~5월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41%가 증가한 HK \$5,200만을 기록했다. 규격별로는 250~360ml 포장제품이 大宗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88년 들어서는 250~360ml 포장제품 수입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형포장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再輸出의 경우도 최근 250~360ml 포장제품의 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여타 규격포장제품의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재수출은 87년중 전년대비 50%가 증가한 HK \$1,200만을 기록했으며, 88년 1~5월중에는 전년동기대비 69%가 증가한 HK \$800만으로 집계되고 있다.

自體輸出의 경우도 최대 수출시장인 美國시장으로의 수출이 회복되면서 中國 및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87년중 홍콩의 청량음

료 자체수출은 전년대비 14%가 증가한 HK \$4,100만으로 집계되고 있다. 88년 1~5월 중에는 HK \$2,700만으로 전년동기대비 80%가 증가한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競爭國동향

홍콩 수입음료시장의 주요공급국들로는 中國·臺灣·日本·싱가포르 등을 들 수가 있는데, 臺灣의 경우는 제리를 함유한 음료를 비롯해서 과즙 및 기타 식물성 추출물 등을 함유한 제품들을 주로 공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日本 브랜드인 Pokka의 코피음료·과일입자를 함유하고 있는 과즙음료 등을 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日本의 경우는 각종 건강음료류를 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中國의 경우 홍콩과 인접한 深圳등 絶濟特區내에 음료생산공장들이 홍콩을 비롯한 인근지역 공급을 목적으로 근래들어 상당수 설립되고 있어 對홍콩 공급량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産 음료는 人蔘음료가 비교적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과즙음료·보리음료 등도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아직 진출 초기단계로서 확고한 市場基盤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輸出入管理制度 및 流通구조

홍콩은 청량음료 수출입시 수출입허가·성분검사 등 수출입규제조치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홍콩産 제품을 비롯한 수입청량음료에 대해 85년부터 100 l 당 HK \$60(US \$1=HK \$7.8)의 物品稅를 부과하고 있으며, 모든 포장식품에 英字·漢字 또는 英·漢字로 상품명·성분(함량순)·유효기간·제조원명 및 주소·규격·저장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된 새로운 食品라벨 관리법규를 87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홍콩의 수입청량음료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체 직영 現地法人 또는 현지 전문에이전트를 통해 주로 수입되어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각소매업체들로 직접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은 자체 供給綱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지시장 유통망이 없는 일부 수입업체들은 별도로 流通전문업체를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